

## 믿는 자, 복되도다.

본문 : 요한복음 20장 19-31절

\* 쉬운성경으로 성경 본문을 다같이 읽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꼭 읽고 시작합니다.

19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 잠갔습니다. 그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 이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자 무척 기뻐했습니다.

21 다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24 열두 제자 중에서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있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25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박힌 곳에 찔러 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26 일 주일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때도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7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28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29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30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31 그런데도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함께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1.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선생님의 체포와 죽음은 제자들을 큰 두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용기를 내서 몰래 뒤따랐던 베드로도 겁을 먹고 결국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요 18장).
3.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두려움에 유대인들을 피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었습니다.
4.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시고,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이셨습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무척 기뻐합니다.
5.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 숨을 내쉬며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던 일을 대신 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7. 예수님의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태복음 3:2)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이제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힘입은 후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8.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이들은 죄사함의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9. 그런데 이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의 방문 소식을 전해들은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 손의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이 박힌 곳과 옆구리의 창 자국에 넣어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며 믿지 않았습니다.
10. 일 주일 뒤 예수님께서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그 날은 도마도 함께였습니다.
11.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여기 찔러보아라. 내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12. 그때에야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니?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이라. 이적을 보이라. 증거를 대라며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본다고 믿어지고,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지 못해도 경험하지 못해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 부모님과 함께 토론해 보세요!

1.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명령을 하시나요?
2.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나요?